

말씀 각인의 주제

시편 102:19-28, 히브리서 1:1-14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히브리서 개론 - 수신자, 저자, 특징

1.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능력, 영혼을 치유

2.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 : 창조자, 통치자, 구속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결론 : 말씀의 주제인 오직 복음을 각인시켜야 - 목상할 수 있는 영적상태 준비

“주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복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복음을 체험하는, 또 복음을 반드시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오늘부터 몇 달 동안 히브리서를 목상할 것이다.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부터 생각해 보자. 히브리서는 제목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된 성경이다. 이 성경이 정경이 되면서,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초기 기독교 때부터, 아마 이 편지는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바울의 14번째 편지라고 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쓰고 언제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어느 신학자는 천국에 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성경 전체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복음 메시지의 색깔이나 깊이를 보면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표현 양식이 바울의 것과는 좀 다르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같이 필요한데,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쓸 때 발신인과 수신자를 함께 썼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양식이 없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히브리서의 중요한 특징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약성경과 구약의 제도에 대해서 저자가 굉장히 해박하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풍습과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구약성경을 너무 잘 알기에 그것을 많이 인용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구약을 재해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구약을 풍부하게 인용하면서, 왜 구약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록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라고 한다. 복음을 원색적으로 설명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각인된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자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목상하고 각인시키면서, 유대인들이 놓쳤던 그 말씀의 주제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유대인의 실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에 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도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유대인이 존경하는 랍비가 죽고 나서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1년 후에 유언을 열어 보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직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날 한꺼번에 유대인 전체가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럴 조짐이 지금 보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 중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제를 따라서 말씀해 가는 가운데, 깊은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원한다.

1.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비밀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상해야 되겠다.

(1) 요1:1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와 역사를 말씀 속에 담으셨다.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목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목상하는 것이 곧 말씀 목상의 기초다. 이번 주에 우리 랩넛트와 함께 하나님을 목상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2)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했다. 마5:18에는,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다. 짐 하나, 획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사34:16에 보면, 여호와와 입이 명하시고, 여호와와 영이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다. 사55:11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된다고 했다. 믿으시기 바란다. 시119:105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시119:100에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계1:3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말씀을 읽다가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주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마4:4).” 혼과 영과 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참된 치유의 해답이 이 말씀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3장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다. 자라면서 계속 문제를 겪게 된다. 이 문제 속에서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영혼이 병들어간다.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가 온 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것으로 치유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돈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권력이나 명예로, 어떤 때는 선행으로 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영적인 치유는 절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 버린 가슴에는 엄청난 구멍이 생겼다.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메꾸어지겠는가. 돈도 명예도 지식도 여자도 남자도 이 구멍을 채울 수 없다. 그 자체가 착각이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승리한다. 치유받을 수 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치유하신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만 살게 되어 있다. 새 힘을 얻게 되어 있다. 랩넛트가 성장 과정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를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그 속에 치유의 말씀을 담으면 된다. 그래서 그 속에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자는 것이다. 말씀으로 가득차 있으면 영혼이 치유된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한국교회의 장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다. 많이 배우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다. 추수한 후에는 들판이 다 비어있다. 그러면 집에 들어앉는다. 그때가 겨울방학이다. 그러면 전부 교우들이 1주일분 양식을 싸 가지고 와서 목포의 제일 큰 교회에 모였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한 권씩 가르쳐 주었다. 전 성도들이 성경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서 한글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온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른다. 머물 곳이 없으니 큰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자기 집을 열었다. 그래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은 예배당에서 먹고 잤다. 토요일이 되면 전부 집으로 가서, 주일예배를 본교회에서 지키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목포로 올라간다. 갈 때 양식을 가지고 가서 목포 교회의 성도와들과 나눈다.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면, 얼마나 교제가 돈독해지는지 모른다. 그런 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도시로 모여 살면서 그런 모습이 없어져 버렸다. 그 대신 우리는 말씀훈련을 계속 받고 있으니, 이번 집중훈련에 전부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교회에서 하나씩 꼭 참여하라.

2.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말씀 각인의 주제가 오늘 제목이지 않나?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성경 곳곳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인들이 항상 듣고 읽고 각인시켰던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성경을 누가 썼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한 학기를 다 하는 경우도 있다. 진짜 주제는 말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한다. 성경의 주제는 선행이 아니다. 겸손, 정직, 정의가 아니다. 사회 정의나 민중 해방이 아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요5:39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목상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빼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신구약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있는 요람이라고 했다. 본문에서 저자는, 구약성경이 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1) 히1:2에 보니까, 천지를 누가 만드셨는가? 당연히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천지창조에 함께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분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신 것이다.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심을 선포하고 있다. 성경에 창조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시다.

(2) 히1:3-7에는,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한다. 세상은 육신적, 물리적 세계 외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이 영계를 다스리신다. 히1:4에,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 했고, 히1:6에 그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했으며, 히1:7에는 그분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실패하고 물러간 후에는 천사가 와서 주님을 수종했다고 했다. 천사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수종드는 존재들이다. 시103:20-22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동원되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천사는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종들이니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권세가 없다. 자녀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말이다. 그들은 섬기는 종이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났다. 그리고 지구에 출현해서 아담과 화와를 무너뜨린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종들이 되었다. 이 죄에서 빠져나올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성경을 왜 기록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뭔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다. 창조자, 통치자, 구속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4)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것을 히1:8-13에서 선포한다.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세상은 없어지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며, 주님의 통치도 영원하시다. 우리가 실수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신다. 구원받은 자를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은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때 복음의 빛이 더 밝게 비취고 자녀에게 아름답게 심겨진다. 그래야 자녀들이 본을 받고 각인이 된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담겨져 있는지 모른다. 참사랑 가족들이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자녀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종, servant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보자. 내가 멕시코에 가서 선교사님과 사역을 했는데, 아침에 같이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꼬챙이 하나를 주시더니 찢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찢었다니 주먹만한 조개가 나오는 것이다. 나는 아무리 찢어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말했다. “야, 나 자존심 상한다. 천사는 뭘 하고 있어? 저분은 되는데 나는 왜 안 잡혀? 천사야,

너 시방 뭘 하고 있는거야?” 그 양반 듣게 한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했는데, 그 말을 끝내고 바로 찢었다니 엄청 큰 게 나온 것이다. (웃음) “야, 이제 감 잡으셨군요!” 제발 좀 부러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쫓아라. 천사를 부러라. 되게 되어 있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옹위하고 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 됐는데도 사용 못 하면 병신이고 바보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란다.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란다.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선포한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원수는 벌벌 떤다. 여러분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귀신들린 사람에게 ‘석가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얻어맞아서 머리가 깨질 수도 있다.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 가서 본 사람은 금방 안다.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못 봐서 그렇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전도사님을 따라 점쟁이 집에 가 봤다. 가기 싫다. 무섭다 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데리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딱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어, 빨리 가라.” 아이들이 깨달았다. “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맞구나. 귀신들린 여자가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그때부터 또 가자고 하더라는 것이다. (웃음) 제발 현장에 가 보라. 여러 현장에 가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실제 하나님의 자녀님이 깨달아지면서 자신이 생기는 것이지, 한 번도 안 싸워보고는 ‘가서 들통나면 어떡하니’ 하고 있으니 어떻게 승리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영생을 가졌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인시켜야 할 말씀의 주제는 결국 오직 복음이다. 그게 언약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유대인 엘리트들처럼 구약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아예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추측하기로는, 히브리서는 아블로의 저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행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블로는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런데 목사이고 지도자인데도 복음을 잘 몰랐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가르쳐 주었다. 바울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아닐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따라 살 때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후대를 성공자가 아니라 참 성공자로 세우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각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의 주제를 알고 목상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송구영신에매 때 말씀드렸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 오직 예수에 집중하시기 바란다. 집중이 먼저 되어질 때 반복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되어지면, 반드시 복음의 각인은 나에게뿐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 세계를 깊이 누리면서, 영적인 축복을 정말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리는 말씀 목상을 시작하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기를 축복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요절이 77절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 금방 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70절 암송해 보라. 복음소식을 암송해 보라. 어느 날 확신이 온다. 이것을 자꾸 말할 때, 내게 있어야 말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를 바란다.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말할 때는 운운과 두려움으로 하시기 바란다. 복음소식을 외워 보라. 하면 엄청난 자신이 된다. 70요절을 암송해 보라. 영어로까지 암송하면 세계에 나가서도 전할 수 있다. 램넛들이 특히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금년은 복음소식, 70구절을 완전히 암송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해로 만들어서 각인하라. 강단말씀을 목상하고 기도수첩을 목상하고 성경을 목상하면서, 복음을 깊이 붙드는 하루, 한 주간,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새로 출발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옛 사람을 던져 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까지의 실수를 이제는 던져 버리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원수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